

오늘의 주요 언론보도

- 2024년 4월 24일 -



주요 기사내용	해당부서	보도매체
○ 제주, 원거리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11면(24.3.25.)	제주농업기술센터	농축산기계신문
○ ‘맛나봉’, ‘레드스타’, ‘설향’ 내년부터 농가 보급-4월호 p96	과수연구과	농경과원에
○ ‘맛나봉’, ‘레드스타’, ‘설향’ 내년부터 농가 보급-4월호 p68	과수연구과	팜앤마켓
○ 제주 키위 수출전문농가 육성에 박차!-4월호 p123	과수연구과	월간원에
○ 올해 노지감귤 이른 받아 예상-4월호 p123	기술지원조정과	월간친환경
○ 국내육성 보리품종 적극 지원 나서-4월호 p96	제주농업기술센터	농경과원에
○ 갑작스런 정전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4월호 p87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농경과원에
○ 제주 특용작물의 경쟁력을 강화한다!-4월호 p35~p37	동부농업기술센터	농경과원에
○ ‘제주국제감귤박람회 품평회’ 천혜향 금상에 월평동 홍동표 씨 수상-4월호 p138	제주감귤박람회	월간새농사
○ 제주도, 국내 육성 메밀 품종 ‘양절’ 채종단지 운영-10면(24.4.15.)	농산물원종장	한국농정
○ 올해 첫 하우스감귤 수확... 11브릭스 이상 7t 내외 생산-3면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뉴제주일보
○ 올해산 제주감귤 첫 수확 출하-1면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제민일보
○ 하우스 온주감귤 수확 시작... kg당 1만원-5면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제주일보
○ 올해산 제주 하우스감귤 첫 출하-6면	서귀포농업기술센터	한라일보
○ 생활개선서귀포시연합회, 나눔-9면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제주일보
○ [기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의 미래인력 양성 마중물 역할-14면(이미숙)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뉴제주일보
○ 디지털 과학영농으로 농업 대도약-1면	-	제주일보

(농축산기계신문: 2024년 3월 25일)

○ 제주, 원거리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11면

제주, 원거리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수요 높은 파쇄기 3~4월 집중 임대로 적기영농 지원

제주농업기술원은 제주시 동부지역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원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제주시의 '조천읍과 화북·삼양·봉개동'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임차하려면 왕복에 최대 2시간이 소요됐으며, 특히 간벌, 전정 기간에는 파쇄

기 수요 급증으로 임차가 어려워 불편을 호소해 왔다.

이에 제주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 접근성 개선과 신속한 임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업체와 위탁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3~4월 동안 제주시 영평동에 파쇄기 10대를 배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원거리 임대사업소에서

도 제주시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임대사업소와 동일하게 △농기계 임·출고 △농기계 안전교육 △농기계 수리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파쇄기 임차를 희망하는 제주시 동부지역 농업인은 손쉽게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으며 1회당 최대 3일 동안 임차할 수 있다. 사용료는 1일 1만2000원이다.

진동협 농업기계화팀장은 "원거리 임대사업으로 농업인 불편을 적극 해소하고 적기 영농지원 및 경영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농업기술원은 제주시 동부지역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원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한다. 사진은 파쇄기 임대 모습이다. **3.25**

농축산기계신문 11

김은지 기자 stylett77@alnews.co.kr

(농경과원예: 2024년 4월호)

○ '맛나봉', '레드스타', '설향' 내년부터 농가 보급-p96

제주도농업기술원

'맛나봉', '레드스타', '설향' 내년부터 농가 보급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고상현)은 직무발명품종 '맛나봉', '레드스타', '설향'의 도내 신속한 보급을 위해 품종보호권 통상실시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도내에 사업장을 둔 종자업체를 대상으로 5년간의 통상실시권을 이전해 '맛나봉' 5만 6,500주, '레드스타' 5만 4,500주, '설향' 3만 9,300주 등 총 89ha에 식재 가능한 15만 300주가 도내 한정 보급될 예정이다.

이번 통상실시 계약을 체결한 3개 품종은 지난 2011년 황금향(모본)과 레드향(부본)을 교배해 육성했다. 12월 중순

에 수확하는 '맛나봉'은 당도 13.6°Bx, 산함량 1.06%, 과중 237g으로 노지재배가 가능할 전망이다. '레드스타'도 12월 중순 수확하는 품종이며 당도 12.0°Bx, 산함량 1.00%, 과중 217g으로 오렌지 색을 띤 빨간색의 매끈한 과피가 특징이다. '설향'은 당도 15.1°Bx, 산함량 0.90%, 과중 212g으로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다른 품종과 달리 수확기가 1월이다.

과수연구과 T. 064) 760-7414

농경과원예

4월호 96

(팜앤마켓: 2024년 4월호)

- ‘맛나봉’, ‘레드스타’, ‘설향’ 내년부터 농가 보급-p68

‘맛나봉’, ‘레드스타’, ‘설향’ 내년부터 농가 보급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직무발명품종 ‘맛나봉’, ‘레드스타’, ‘설향’의 도내 신속한 보급을 위해 품종보호권 통상실시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도내에 사업장을 둔 종자업체를 대상으로 5년간의 통상실시권을 이전 해 ‘맛나봉’ 5만 6,500주, ‘레드스타’ 5만 4,500주, ‘설향’ 3만 9,300주 등 총 89ha에 식재 가능한 15만 300주가 도내 한정 보급될 예정이다.

올해 종자업체에서 묘목을 생산하고 내년부터는 1년 생 묘목이 농가에 보급된다.

농업기술원은 이번 통상실시를 통해 신품종 감귤의 신속한 농가 보급과 상품성이 우수한 국산 품종의 점유율 확대에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통상실시 계약을 체결한 3개 품종은 지난 2011년 황금향(모본)과 레드향(부분)을 교배해 육성했다.

12월 중순에 수확하는 ‘맛나봉’은 당도 13.6Bx, 산함량 1.06%, 과중 237g으로 노지재배가 가능할 전망이다. ‘레드스타’도 12월 중순 수확하는 품종이며 당도 12.0Bx, 산함량 1.00%, 과중 217g으로 오랜 지색을 띤 빨간색의 매끈한 과피가 특징이다. ‘설향’은 당도 15.1Bx, 산함량 0.90%, 과중 212g으로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다른 품종과 달리 수확기가 1월이다.

팜앤마켓
4월호 68

(월간원예: 2024년 4월호)

- 제주 키위 수출전문농가 육성에 박차! -p123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제주 키위 수출전문농가 육성에 박차!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재배면적이 증가하는 국내 육성 골드키위의 공급 안정화를 도모하고 새로운 소비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제주산 키위 수출 확대사업을 추진한다.

제주산 키위는 국제 우수 농산물 관리기준(GLOBAL G. A.P)을 획득해 국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철저한 품질관리로 수출량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수출량의 88.9%가 일본에 집중돼 있고 대만 4.5%, 싱가포르 2.7%, 홍콩 2%, 그 외 국가 1.9% 순이다. 최근 최대 과일 소비국가인 대만과의 키위 품목 검역협상이 완료되며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짐에 따라 농업기술원은 한국

키위수출(주)과 제주산 국내 육성 골드키위의 수출 확대를 위한 공동연구에 나선다. 양 기관은 공동연구사업의 목표를 △대만 수출 전문 10개 농가 육성 △수출용 키위 재배 관리 및 병해충 방제 지침서 제작·보급 △시장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한 신규시장 진입 전략 마련으로 설정했다.

박재홍 아열대과수연구팀장은 “체계적인 농가 관리 및 안정적인 재배기술 보급으로 제주산 키위를 수출 전략품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출 대상 품종인 ‘스위트골드’는 당도 16~20Brix의 고당도 품종으로 제주지역 키위 재배 월간원예 %를 4월호 123

(월간친환경: 2024년 4월호)

○ 올해 노지감귤 이른 발아 예상-p123

올해 노지감귤 이른 발아 예상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겨울철 기온 상승과 강수량 증가로 올해 노지감귤 발아가 전·평년에 비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서리피해를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올해 1~2월 평균기온은 제주시 8.5℃, 서귀포시 9.2℃로 전·평년대비 1.1~2.4℃ 높았고, 강수량도 제주시 280.8mm, 서귀포시 191.4mm로 전·평년대비 52.9~149.1mm 많았다. 어린 순과 꽃봉오리가 서리피해를 입으면 꽃눈이 까맣게 고사하고 이후에 새순과 꽃이 늦게 발생하면 수량이 감소한다. 난방기나 보온시설이 없는 비가림하우스는 주야간 천측창을 모두 개방해 자연온도에 가깝게 하고 토양을 건조시켜 발아를 늦추고 전정도 최대한 늦춰야 한다. 서리 상습 피해지역의 노지감귤원은 방풍수를 정리해 냉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전정시기를 늦춰 3월 중하순부터 10% 이하로 약하게 전정해야 한다. 



고상환 원장은 "기후변화로 감귤 생육주기가 변화하고 있으나 기상과 과원 상황에 알맞게 농작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월간친환경
4월호 123

(농경과원예: 2024년 4월호)

○ 국내육성 보리품종 적극 지원 나서-p96

제주농업기술센터

국내육성 보리품종 적극 지원 나서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문선희)는 용도별 국내육성 보리품종 생산단지 조성하고, 기능성 색깔보리 특산화와 품질 고급화를 통해 보리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맥주보리는 비교적 낮은 소득으로 도내 재배면적이 4년 사이 34% 감소했다. 기능성 색깔보리는 일반 보리보다 안토시아닌과 프로안토시아닌,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높아 항산화 효과가 있는데, 이를 활용해 다양한 가공제품을 생산·판매하면 색깔보리 원곡으로 판매했을 때에 비해 4.3

배, 맥주보리 원곡 대비 20배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국비 1억 원을 확보해 용도별 국내육성 보리품종 생산·가공 연계 보급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재배단지 10ha를 조성해 색깔보리를 생산하고, 가공을 위한 도정기와 분쇄기 등의 가공시설을 갖춘다. 기반조성이 완료된 후에는 가공제품을 개발해 체험 등 농촌융복합산업과 연계하고 재배면적도 확대할 계획이다.

농경과원예
특화작목육성팀장 T.011-648-1111
4월호 96

(농경과원에: 2024년 4월호)

○ 갑작스런 정전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p87

갑작스런 정전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김창운
제주도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소장

서귀포의 감귤은 자타공인 제1의 주산작물이다. 그중에서 하우스 온주밀감을 비롯해 한라봉과 천혜향 등 대부분의 만감류는 하우스 재배를 통해 생산되고 있다. 하지만 하우스 재배 농업인들의 걱정거리 중 하나는 낙뢰나 태풍, 차량 사고에 의한 전봇대 파손 등으로 갑작스레 발생하는 정전이다. 예기치 못한 정전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감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한낮에 정전이 되었을 때 신속하게 조치하지 못할 경우 하우스 내부온도가 50℃를 넘어가면 농작물이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더라도 세력 회복에 수년이 경과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 농가에서는 정전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 발전기를 설치하는데, 1대를 설치하는데 1천만원 내외의 비용이 들고 비교적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농업인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농업용 에너지 저장장치(ECO ESS) 개발을 제안했다. 지난 4월 제주특별자치도(혁신산업국), 제주테크노파크, 업체와의 개발방향 협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협업을 이어오며 시제품을 개발하고 두 차례에 걸친 시연회를 열었다. 이 저장장치는 전기차의 사용 후 배터리 셀 10개를 하나로 조합해 만든 10.9kWh 용량의 칩탈식 배터리 6세트와 충·방전제어 컨버터, 3상 인버터 장치에 소형 소화기를 장착하고 2중함에 조립했다.

최근 시연회에서는 환풍기 작동 중 전기 차단기를 내렸을 때 환풍기가 끊김 없이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실상 정전 상황에서도 무정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완충된 ESS장치는 약 3~4시간 동안 환풍기 5대를 작동할 수 있는 용량인데, 작동 도중에 추가 보유한 칩탈식배터리를 간단하게 교체한다면 작동시간 연장도 가능하다. 또한, 충전된 전기에너지를 평상시에는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탄소제로와 분산에너지를 추구하는 도정시책에도 부합하다. 이 장치는 사용 후 배터리를 농업에 적용하는 첫 사례로 내년 6월까지 관내 10개소에서 실증할 예정이다. 실증사업장에서 얻은 데이터는 관계 기관과 면밀히 분석해 ESS장치가 농업 현장에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갑작스런 정전에도 걱정없이 안정적인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농경과원에** 4월호 87

(농경과원에: 2024년 4월호)

○ 제주 특용작물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p35~p37

제주 동부 고보성 | 농업기술보급대상 ●

제주 특용작물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제주 동부농업기술센터 고보성 팀장

제주 동부농업기술센터 고보성 팀장은 근채류(월동무, 당근)-특용작물(땅콩, 더덕)-양채류(단호박, 비트 등)의 재배기술지도 및 시범사업, 현장애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신품종 보급 및 새로운 재배법 개발로 제주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농경과원에
4월호 35

(농경과원에: 2024년 4월호)

○ 제주 특용작물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p35~p37

농업기술보급대상 | 제주 동부 고보성

땅콩 신품종 보급으로 경쟁력 강화!

“우도땅콩은 1987년 소립종 ‘영호’ 품종을 도입한 이후 재래종으로 퇴화돼 수량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국립식량과학원과 협업으로 2014년부터 우도 재래종 땅콩과 초형 종자외관이 유사하며 고올레산을 함유한 ‘우도올레-1’을 선발해 특허를 공동출원하고, 신품종 땅콩 보급 토대 마련으로 우도농업인의 숙원사업을 해결했습니다.”

동부농업기술센터 고보성 팀장은 “우도 지역 소립 땅콩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지역특산품이다. 하지만 지역땅콩 재래종은 종자 퇴화로 인하여 생산성 저하와 빠른 산패에 의한 품질 문제가 발생되어 지역 환경에 적합한 품종 개발이 필요했다”며 사업 추진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동부센터는 국립식량과학원과 협업으로 2019~2020년 지역전용 소립 품종 개발을 위한 지역적응성 실증을 진행하여 재래종과 초형·종자외관이 유사한 고올레산 품종을 선발했다. 그리고 2021~2022년 현장 실증재배 및 품종 우수성을 홍보하고, 2022년 4월 11일 국립식량과학원과 신품종 땅콩을 공동 출원했다.



1 땅콩 신품종 ‘우도올레-1’ 개발·보급을 통한 수량 증가로 농업인 소득이 15% 향상되었고, 신품종 경장이 짧아 글취작업 기계화가 가능해져 노동력이 25% 절감되었다.



1

또한, 땅콩 이모작 재배시 보릿짚 처리 문제가 애로사항이었는데, 파쇄기를 2022년 2개소에 지원해 경운 횟수를 기존 5회에서 2회로 줄이고 6월 상순 적기 파종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우도 지역에 농업현장 담당지도사를 편성해 월 1회 운영 및 현장 기술지도를 통해 신품종 땅콩 실증사업 재배포장 점검 및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를 통해 땅콩 파종방식 개선(1조식→2조식), 땅콩 고사에 따른 제초제 피해 원인 구명, 땅콩 충채 벌레 적기 방제 홍보 등 영농서비스 제공으로 소통을 강화했다.

그 결과, 땅콩 신품종 ‘우도올레-1’ 개발·보급을 통한 수량 증가로 농업인 소득이 15% 향상되었고, 신품종 경장이 짧아 글취작업 기계화가 가능해져 노동력이 25% 절감되었다. 뿐만 아니라 저장성이 8배 이상 좋아져 땅콩 가공품(음료, 아이스크림 등) 개발로 지역 명품 땅콩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2025년까지 기존 재래종 땅콩을 우량 신품종으로 100% 갱신한다는 목표로 지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6

농경과원에
4월호 36

제주 더덕, 전국 제2의 주산지로 육성

한편, 동부센터는 더덕 파종방법 개선 실증으로 노동력 절감 및 입모율을 향상시켰다.

“더덕 파종 후 더덕 줄기가 우점할 때까지 잡초 제거작업은 3~4회 이상 필요해 노동력 과다 투입으로 농가 경영비가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더덕 파종 후 발아 및 생육 불균형으로 파종방법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고 팀장은 더덕 파종방법 개선(최소경운)을 위해 2022년 1개소에 실증을 실시했다. 기존 트랙터 경운+10일 후 제초제 살포+무경운 파종으로 변경했다. 그 결과, 더덕 최소경운 파종으로 잡초 발생 억제에 의해 잡초 제거 횟수가 관행 3~4회에서 시범 2~3회로 줄며 인건비가 50% 절감되었다. 또한, 잡초 발생밀도 감소 및 파종 깊이 균일화로 입모율이 30% 향상됐으며 안전 농산물 생산이 증가했다. 아울러 명품더덕 생산 이식재배를 2022년 1개소에 실증해 관행 80~100g/개에서 4년근 재배로 500~800g/개의 명품더덕을 생산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했다.

농작업 생력화로 농업인 복지 증진과 환경보전 기여

최근 농촌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인건비 상승에 의한 경영비가 가중되며 농업인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부센터는 생분해멀칭비닐 이용 농작물 재배시범을 2022년 9개



2

소 단호박, 볼감자, 땅콩, 생강 4작목에 적용했다. “농작물 수확 후 경운작업으로 생력화가 가능해졌고, 페비닐 발생이 없어져 농작물 재배 후 페비닐 제거에 드는 노력과 영농 페비닐 처리 문제, 미수거에 의한 환경오염 발생 불필요로 비용 절감, 농업인 복지 증진 및 환경 보전 역할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한편, 고 팀장은 최근 종자용 유채 재배 작형개발로 소득원 개발을 위해 실증재배를 진행하고 있다. “경관보전용 유채는 소득이 적어 만개시 파쇄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도 지역 작형개발로 소득 증대 가능성을 검토 후 유채 재배면적 확대를 실증하고 있습니다. 11~5월 종자용 유채를 재배하고, 6~10월 땅콩 재배를 실시한다면 농업인의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경**

1 김정혁 기자

2 “차별화된 명품더덕 생산으로 새로운 소비시장 개척을 도와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에 기여할 방침입니다.”

3 종자용 유채 재배 작형개발로 소득원 개발을 위해 실증재배를 진행하고 있다.



농경과원에
4월호 37

(월간새농사: 2024년 4월호)

○ ‘제주국제감귤박람회 품평회’ 천혜향 금상에 월평동 흥동표 씨 수상-p13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감귤박람회 품평회’ 천혜향 금상에 월평동 흥동표 씨 수상

(사)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위원장 고병기)와 (사)제주감귤연합회(회장 백성익)가 공동주관한 ‘2024 제주국제감귤박람회 감귤품평회’ 천혜향 품목의 수상자가 3월 8일 발표됐다. 올해 최고의 천혜향의 영예를 얻은 ▲금상 수상자는 서귀포시 월평동 흥동표 씨로 결정됐다. 이어 ▲은상은 서귀포시 중문동 이청범 씨 ▲동상은 안덕면 김태형 씨가 받았다. 품평회에는 도내 지역농협과 감귤농협, 농업인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우수농가의 천혜향 30점이 출품됐다. 전문심사위원회에서 1차 품질심사(당·산도), 2차 외관·색택·식미심사, 최종 과원 현장심사를 진행한 후 수상자가 결정됐다. 수상자



들에게는 상패와 함께 금상 100만 원, 은상 70만 원, 동상 50만 원의 시상금이 주어졌다. 고병기 조직위원장은 “최고의 감귤 수상 농가에 대한 조직화를 통해 우수 재배기술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4월호 138

(한국농정: 2024년 4월 15일)

○ 제주도, 국내 육성 메밀 품종 ‘양절’ 채종단지 운영-10면

제주도, 국내 육성 메밀 품종 ‘양절’ 채종단지 운영

2기작 가능하고 수량성 높아...채종단지 5개소 30ha 선정

국내 육성 메밀 품종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제주내 국내 품종 채종단지 운영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 제주농업기술원)은 지난 8일 국내산 품종의 시장점유율 및 도내 자급률 확대를 위해 올해 국내 메밀 품종 ‘양절’의 채종단지 30ha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재래종 메밀은 가을에만 재배가 가능해, 통상적으로 메밀 농가에서는 2기작이 가능한 외래종 메밀을 재배해 왔다. 이에 제주농업기술원은 마찬가지로 2기작이 가능한 국내 육성 품종 ‘양절’을 선발, 농가 보급을 위해 채종단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절은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육성한

품종으로, 일반메밀과 다르게 봄-가을 재배가 가능하고 루틴 함량이 높으며 외래종에 비해 수량이 15% 많은 장점이 있다. 농업기술원은 올해 3월 모집 공고를 통해 채종단지 5개소(지역농협 1·영농조합법인 4) 30ha를 선정했으며 안정적인 종자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포장관리, 생육상황 점검, 종자정산·선별 등 시기별 현장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농업기술원은 생산된 보급종에 대해 종자검사를 실시하고 순도 높은 우량종자를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종자검사에 협력한 단체에는 채종단지 운영에 따른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보전을 위해 생산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생산장려금은 생산량



국내 육성 메밀 품종 ‘양절’의 채종단지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제공

kg당 전년도 1등급 종자 수매가의 20%가 지급된다.

송효선 제주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은 “메밀 품종 국산화 및 소비자

신뢰도 확보를 통해 메밀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메밀 생산 농가 소득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

4.15.

한국농정 10

(뉴제주일보: 2024년 4월 24일)

○ 올해 첫 하우스감귤 수확... 11브릭스 이상 7t 내외 생산-3면

올해 첫 하우스감귤 수확... 11브릭스 이상 7t 내외 생산

“안정적 생산·품질 향상 위해 기술 지도 강화할 것”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귀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윤)는 22일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의 과원(대표 김한규)에서 2024년산 첫 하우스감귤이 수확됐다고 밝혔다.

제주산 하우스감귤은 남원읍 위미리에서 2022년 4월 20일, 지난해 4월 19일 첫 수확된 데 이어 올해는 지난 22일 처음으로 수확됐다.

이번에 수확된 하우스감귤은 극조생 온주밀감으로 지난해 11월 3일부터 극조기 가운을 시작해 중간 단수 등 철저한 물관리 등으로 품질을 높였다.

이번 처음 수확한 하우스감귤은 평균 당도 11브릭스 이상으로 7t 내외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확한 감귤은 대부분 감귤농협을 통해 대형마트로 유통될 예정이며 출하 가격은 지난해보다 10%가량 높게 형성될 전망이다.

최승국 서귀포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



지난 22일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에서 첫 수확된 하우스감귤.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제공.

담당관은 “하우스감귤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 향상을 위해 기술 지도를 강화하겠다”며 “농가에서도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완숙 감귤만 출하하도록 철저한 품질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뉴제주일보 3면
현대성 기자 csn1001@jdoilbo.net

(제민일보: 2024년 4월 24일)

○ 올해산 제주감귤 첫 수확 출하-1면

올해산 제주감귤 첫 수확 출하

22일 남원읍 위미리 과원서 11브릭스·산 1.0% 내외 등

제주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2일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과원(대표 김한규)에서 2024년산 첫 하우스감귤이 출하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수확된 하우스감귤은 극조생 온주밀감으로 평균 당도는 11브릭스 이상, 산함량은 1.0% 내외

다. 생산량은 7t 내외로 예상되며, 수확한 감귤은 대부분 감귤농협을 통해 대형마트로 유통될 예정이다. 도는 출하가격이 지난해보다 10% 가량 높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승국 기술보급담당관은 “하우스감귤의 안정적인 생산·품질향상

을 위해 기술지도를 강화하겠다”며 “농가에서도 고품질 과실 생산·완숙 감귤만 출하하도록 철저한 품질관리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를 포함한 최근 3년간 첫 수확일은 2022년 4월 20일, 지난해 4월 19일, 올해 4월 22일 등으로, 모두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에서 수확됐다.

제민일보 1면

(제주일보: 2024년 4월 24일)

○ 하우스 온주감귤 수확 시작... kg당 1만원-5면

하우스 온주감귤 수확 시작...kg당 1만원

작년보다 10% 높아...올해 11브릭스 이상·7t 예상

올해산 제주 하우스 온주감귤 첫 수확이 시작됐다.

23일 제주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소재 김한규 농가는 지난 22일 2024년 첫 하우스 시설 재배 감귤을 수확했다.

제주산 하우스감귤은 남원읍 위미리에서 2022년 4월 20일, 지난해 4월 19일에 이어 올해는 22일 처음으로 수확했다.

이맘때쯤 수확하는 하우스 온주감귤은 공급량이 적기 때문에 가격이 지난해 산(1kg 9000원~1만원)보다 10% 가량 높은 1만~1만1000원 수준에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설을 앞두고 수확된 만감류(1kg 5000~6000원)보다 두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이 농가의 올해산 하우스감귤은 평균 당도 11브릭스 이상으로 생산량은 7t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수확된 감귤은 극조생 온주밀감으로 지난해 11월 3일부터 극조기 가운을 시작해 중간 단수 등 철저한 물 관리 등으로 품질을 높였다.

대부분 감귤농협을 통해 대형마트로 유통된다.

최승국 제주도 농기원 기술보급담당관은 “하우스감귤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을 위해 기술 지도를 강화하겠다”며 농가에서도 고품질 과실 생산, 완숙 감귤만 출하하도록 출하 전 품질관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4.24. 제주일보 5|자

(한라일보: 2024년 4월 24일)

○ 올해산 제주 하우스감귤 첫 출하-6면



수확을 앞둔 올해산 제주 하우스감귤.

제주도농업기술원 제공

올해산 제주 하우스감귤 첫 출하

남원읍 위미리 농가서 수확 당도 11브릭스... 가격 호조

올해산 제주감귤이 첫 수확, 출하됐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2일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의 과원(대표 김한규)에서 2024년산 첫 하우스감귤이 출하됐다고 23일 밝혔다.

제주산 하우스감귤은 위미리에서 2022년 4월 20일, 지난해 4월 19일에 이어 올해는 22일 처음으로 수확됐다.

이번에 수확된 하우스감귤은 극조생 온주밀감으로 지난해 11월 3

일부터 극조기 가운을 시작해 중간 단수 등 철저한 물 관리 등으로 품질을 높였다. 평균 당도 11브릭스 이상으로 7t 내외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확한 감귤은 대부분 감귤농협을 통해 대형마트로 유통될 예정이며 출하 가격은 지난해보다 10%가량 높게 형성될 전망이다.

제주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하우스감귤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을 위해 기술지도를 강화하겠다”며 “농가에서도 고품질 과실 생산과 완숙 감귤만 출하하도록 출하 전 품질 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4.24. 백금탁기자 | 한라일보 6면

(제주일보: 2024년 4월 24일)

○ 생활개선서귀포시연합회, 나눔-9면

생활개선서귀포시연합회, 나눔

(사)한국생활개선서귀포시연합회(회장 김희순)는 지난 22일 서귀포농업기술센터 가공실에서 운영위원과 회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직접 마늘종 장아찌를 만들어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4.24. 제주일보 9

(뉴제주일보: 2024년 4월 24일)

○ [기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의 미래인력 양성 마중물 역할-14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의 미래인력 양성 마중물 역할

2022년 기준 제주의 농가 인구는 2010년 대비 35% 감소한 7만4465명,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10년 12.1%에서 2022년 16.6%로 증가했다.

농업·농촌 고령화가 가속화되며 심화되는 인력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 후계인력을 육성해 인력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농업농촌 인력자원으로 신규농업인, 귀농·귀촌인 및 청년농업인의 가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영농 초년생인 이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영농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신규농업인 영농기초교육과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분야 전문지도사들이 영농 애로사항 해결을 돕기 위해 현장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영농기초교육 과정은 농업기초, 분야별 선도농업인 경영사례 등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신규농업인과 선도농업인



이미숙
제주도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

간 1대 1 멘토링으로 현장 밀착형 실습 교육을 지원해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는 선도농업인이 가진 작목 재배기술과 농업경영, 영농정착 경험 및 노하우를 5개월 간 전수하며 신규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농업 전반과 작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초보 농업인들을 전문농업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교육과 현장 컨설팅을 강화하고 멘토링으로 경험과 기술을 이전하는 현장실습교육을 통해 영농 정착에 도움을 주고 초기소득 불안을 완화시키는, 지역에 이주한 신규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특히 해 나갈 계획이다. 4.24. 뉴제주일보 14

(제주일보: 2024년 4월 24일)

○ 디지털 과학영농으로 농업 대도약-1면

디지털 과학영농으로 농업 대도약

제주도, 어제 '지속가능한 청정농업' 목표 농업비전 선포

농산물수급관리센터 개소 6대 핵심 전략 수립 '주목'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1차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디지털 과학영농, 제주농업 대도약'을 제주농업의 미래비전으로 선포하고 디지털 기반 농산업시스템 대전환에 나섰다.

제주도는 23일 제주시 연북로 현지에서 열린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개소식에서 '농산업시스템 대전환과 지속가능한 청정농업'을 목표로 삼은 제주농업 비전을 선포했다.

이날 비전 선포식은 민선8기 제주도정의 핵심 공약인 전국 최초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에 이어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와 제주농업 디지털센터 개소에 맞춰 진행됐다. 올해 상반기 농업기술원에 신설된 농업디지털센터는 농산물 생산·유통·수출입 등 데이터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해 제주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4.24. 본격화되면서 생산자가 주
제주일보 1 작물의 파종부터 수확,



제주도는 23일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개소식에서 제주농업비전을 선포했다.

판매까지 결정해 자율적으로 수급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

수급관리연합회 설립 이후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4월까지 당근과 감귤을 대상으로 자율적 수급안정 시범 사업을 추진한 결과,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당근의 경우 지난해 출하 초기 가격이 20kg 박스당 2만3000원 정도로 형성됐지만 제주당근연합회, 구좌농협 등이 참여해 시장격리와 매취사업, 가공물량 전환을 통해 올해 3월에는 5만1000원대까지 상승했다. 이날 개소한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는 올해부터 감귤, 당근, 월동무 품목을 대상으로 수급안정 사

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농업디지털센터와 연계한 수급안정체계를 확립해 데이터 기반의 과학영농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미래농업을 선도하고, 미래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6대 핵심 전략을 수립했다.

6대 핵심 전략은 전국 최초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 및 본격가동, 제주형 농업관측 및 공공데이터센터 설치·운영, 푸드테크 기반 제주농산물 가공식품산업 육성, 차세대 감귤산업 육성,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확대로 농업소득 증대, 친환경 및 탄소중립 농업 기반 확대 등이다. 강재병 기자